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전교주일)

제 1독서 : 이사 2, 1-5  
제 2독서 : 로마 10, 9-18  
복 음 : 마태 28, 16-20

# 숲 정 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마태 28, 20)

강 론

소 리

## 전교주일 소고(小考)

박찬길 신부 / 사목국장

오늘은 전교주일이다. 전교주일은 전교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역을 정신적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해 왔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서 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이대로 몇 년이 지난다면 아마도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것 같다.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신자 13명이 1명을 영세 입교시켰는데, 지난해에는 신자 27명이 겨우 한 사람을 영세 입교시킨 것이다. 10년 사이에 선교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신자들의 선교율이 저하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성장 속도가 정체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이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 2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 28, 19-20) 하시며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선교율이 저하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파견된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당 공동체가 하늘을 모르는 이들을 앉아서 기다리는 ‘오라’의 구조에서 그들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가라’의 구조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 안보 불감증(?)

좌초한 잠수정의 발견에서 촉발된 남북한간의 긴장관계는, 그 동안 정부 당국이나 언론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에 비해, 국민들의 반응은 동요없는 일상 생활의 연속이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중국기의 남하나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당시에 보여 준 ‘불안감’이나 ‘사제기’와 같은 난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왜 인가. 우리 국민 전체가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닌지.

그러나 일방적으로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기엔 표현이 지나치다. 분단 이후 남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분단상황을 이용해 왔다. 그것은 다수의 국민에게 남북한간의 긴장관계가 발생할 때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무장 간첩 사건만 해도 그렇다. 남북한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의 계기로 삼기 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전쟁 불가론’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에 넘어가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

### 숲정이 산책



2000년 대희년

# 부모 은혜 깊고 무겁구나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 연구소

옛적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격언에 ‘성인이 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다. 머리 속에 든게 많은 식자(識者)들중에는 순교자들은 물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두고 현세를 부정하는 ‘염세주의’라느니 ‘현실도피’라느니 사후(死後) 세상에 대해 광신(狂信)한 ‘천당주의’라느니 하며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설령 자성제인(子誠齋人)이라고,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는 말이라 해도 무시하거나 흘려넘길 것이 아니다. 까닭은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교훈을 얻으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삶이라하여 너무 지나치게 칭찬꺼리만 찾으려 하거나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도 모두 은당한 일이 아니다.

사실 오늘에 서서 과거의 천주교 신앙을 반성해보면 식자들이 지적한대로 비판받기에 충분했지만, 모든 것이 박탈된 박해시대의 조상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맞았다. 문제는 여름이 왔는데 겨울 옷을 입고 있는 격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신앙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생활을 지배하여 왔다는데 있다. 교회는 그런 신앙생활을 신자들에게 강조하여 왔고, 박해가 끝난 후 오랫동안 알맹이가 빠진 빈 껍데기 우렁처럼, 대부분의 신도들은 신앙의 깊은 뜻을 생각하기 보다 기도문과 교리를 암송하고 신도가 지켜야 할 도리를 습관으로 지켜왔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성직자가 없는 시대에 살던 조상들이 신앙의 내용을 깊이 음미하고 사색하며 진리를 이해하던 전통이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으니 껍데기 신앙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했다.

만약 조상들의 깊은 신앙의 알맹이를 모른다면 이 루갈다 할머니가 “누우나 앉으나 구하고 원하는 바 치명(致命)의 은혜라”고 한 말이나, “내가 죽은 것

을 산 이로 아시고, 산 것을 죽은 줄로 아시라”는 말은 오히려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조상들의 지식, 생각, 정신, 마음, 사상, 의식구조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서양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서양 것’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조상들에게 하느님은 부모였다. 그런 인식이 신앙의 토대였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가 자식과 ‘항상 함께’ 같이 있듯이 하느님을 내 몸에 모시기를 항상 부모같이 모시고자 하며, 모든 신앙생활을 부모에 대한 효도로 풀이했다. 흔히 가정에서 부모들은 말썽꾸러기 자식에게 ‘너도 부모가 되어 보아라. 그러면 부모 속을 알 것이다.’ 하고 말하듯이 사람들은 자식에게 갖는 부모의 마음·생각·뜻·입장을 완전한 사람, 성숙한 인간의 경지로 삼고자 한다. 조상들은 일구월심 부모이신 하느님의 입장으로 돌아가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효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었다. 부모이신 하느님의 뜻을 알고도 실행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송장이었다. 그래서 매사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며 긴장하고 살았다. 천당을 가고 못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일이었다. 조상들은 오로지 높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하느님께 효도하기만 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할 수 있었다. 맹자는 “아버이를 친애함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다시 만물을 애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상들은 아는 게 그것ियो, 배운 게 그뿐이었다.

**대건관광 여행사**  
 가을맞이 새 상품으로 여행자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대건관광여행사  
**강 예 순(프란치스카)**  
**김 욱(바오로)**  
 정읍시 수성동 종삼병원 앞  
 정읍시 상평동 공설운동장 앞  
 ☎ 33-0877~8, 32-3893~4

**015 팔달통신**  
 -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  
 휴대폰, 카폰, 호출기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0015~6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메이크업, 신부화장  
**임 혜 연(엘리사벳)**  
 전동백화점 앞 에스프리 2층  
 ☎ 85-5041

**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탕, 남성복 전문매장  
 · 연중무휴  
 손한성(바오로) · 정정남(가타리나)  
 전주시 교사동(구)역전오거리 천보당  
 ☎ 231-2005~7

잡간

# 세계 파티마 순례 성모상 전주 방문

파티마 성모상이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덕진 성당에 모셔졌었다. 교구에서는 '10월, 로사리오 성월'을 맞아 교우들에게 성모 신심을 함양하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자들의 성모상 방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각 본당별로 시간 배정을 해서 성모상을 방문하게 했고, 매일 저녁 미사를 성모 신심 미사로 봉헌하였다. 3박4일간 방문한 자는 6,000명에 이른다. 11일 환송 미사에 600여 명이 참여하여 성모님의 대한 사랑을 여실히 드러냈다.



'푸른 군대' 지도신부(박인호)는 이번 성모상 방문기간을 마치면서 신자들의 성모 신심에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우리가 성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드리면서 생활하셨던 분이기 때문이다. 로사리오(목주) 기도의 각 단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사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그러기에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로사리오 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하자.

##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 가톨릭 문우회 문학의 밤 : 11월 4일(월) 오후6시30분  
장소 :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초청강사 : 신경림(시인)

1. 축! 견진 : 10월27일(일) 오전10시30분, 인후동 성당
2. 교구장 사목방문 : 10월25일(금) 금암, 고산 성당
3. 사제 연수회 : 10월22일~24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사회교정사목 전주 후원회 월례미사 : 10월21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5. 혼인강좌 : 10월27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비-각15,000원
6. 각 본당 여성분과 임원 및 제단체 임원 피정 : 11월1일~2일, 천호 피정의 집
7. 교구 꾸르실료 총회 : 11월2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8. 기억할 사제 : 23일 이상화(바르톨로메오)신부 39주기

## 요심이 (1208) 김병오

너희들중에 나보다 교리를 잘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고 나와봐!

모르는 교리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교리를 잘 알면 전교도 잘했겠구나 몇사람 영세시켰나? 전교는 안했어

교리는 잘몰라도 전교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교리는 모르는구나...

## 감사합니다

저희 봉동 성당 바자회에 참석해 주신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봉동 성당 사목회 일동 -

## 가톨릭 국악실내악단 단원 모집

모집부문 : 대금, 피리, 타악(장구)  
모집인원 : 각 파트 0명  
연락처 : 교구청 사목국 ☎ 85-0041  
015-162-5781(장윤미)  
접수마감 : 10월31일(목)까지

## 월말 특별 산 피정

· 일시 : 10월25일(금)~27일(일)  
· 장소 : 경기도 가평군 현리 작은 예수회 피정의 집  
· 문의 : (02) 777-6444 (0356) 84-5997

## 수원 조경

조경설계, 잔디, 자연석 묘지공사, 주택조경, 특수조경  
진 일 탁(세례자 요한)  
서학동 좁은목 약수터 앞  
☎(0652)86-5599, FAX. 87-9192  
휴대폰 011-680-5599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일시 : 10월27일(일) 오후2시~5시  
문의 : (0527)52-4241, 3575  
준비물 : 신구약 합본 성서

## 성가정 피정안내

· 일시 : 11월9일~10일  
· 장소 : 예수고난회 광주 명상의 집  
· 대상 : 온 가족이 함께 피정을 하고 싶어하는 모든 신자 가정  
· 예약금 : 40,000원  
· 문의 : (062)571-5004, 8004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F A X 82-9664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1. 오늘의 전교주일: 2차헌금 있음
2. 사제연수회: 22일(화)~24일(목), 나바위 피정의 집  
\* 말씀의 전례 있음(22일, 23일), 24일-저녁미사
3. 혼인강좌: 27일 전 9시 30분, 가톨릭센터  
\* 혼인하실 분은 필히 혼인강좌를 수료하시고 신부님과 면담해 주십시오.
4. 본당 달력 광고 신청: 사무실
5. 모임: ①자비의 모후Cu., 기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대회-23일 전 10시 30분  
③여성연합회-25일 전 10시 30분  
④천사의 모후Cu. 성우회-27일, 공식미사 후
6. 금주 전례: 새벽-남노구역, 저녁-동진구역  
공식 안내-M.E. 해설-손만술, 독서-①송석창 ②윤은희  
신자들의 기도-이수원, 윤경자, 봉헌-오점영 부부
7. 차주 전례: 새벽-인후1구역, 저녁-인후2구역  
공식 안내-성우회, 해설-이봉기, 독서-①노판석 ②강희자  
신자들의 기도-정영덕, 김경자, 봉헌-전도열 부부
8. 금주 청소: 중노 10.11번
9. 차주 청소: 중노 12, 기린봉 1번

□ 지난해 봉헌금: 1,063,780원 □ 교무금: 1,090,5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1. 오늘 전교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2. 복자성당 전신자 1일 대피정 "본당은 우리": 11월3일(일)  
\* 27일까지 신청바람.
3. 교구 사제 연수회: 22일~24일, 나바위 피정의 집
4. 병자 봉성체: 25일(금) 후 2시
5. 유아세례: 26일(토) 후 7시
6. 성서교실: 매주 화요일 전 10시, 후 8시
7. 금주 모임: 빠스카회-공식미사 후
8. 주간 모임: ①M.E 모임-25일(금) 후 7시30분  
②빈첸시오회-26일(토) 전 10시
9. 축! 흔배: 27일 12시  
신랑-김남수(클레멘스)(안정해 가타리나의 자)  
신부-유미라
10. 혼배하실 신자들은 한 달전에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준비서류: 혼인강좌 수료증, 세례증명서, 호적등본 각 1통씩
11. 금주 전례: 해설-형인순, 독서-육종만 부부,  
봉헌-조백환 가족
12. 차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문금철 부부,  
봉헌-김홍현 가족
13. 성당 청소: 26일(토) 밝히오리다Pr., 일치의 모후Pr.
14. 감사헌금: 장속회(소피아) 10만원, 김일남(요셉) 5만원

□ 지난해 봉헌금: 694,420원 □ 교무금: 1,122,00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김범영  
F A X 85-6652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10월은 로사리오(전교의 달) 성월입니다.
  - ◎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금주 모임: ①세영새자모임, 성가대, 애령회-공식미사 후
  2. 차주 모임: ①자모회, 성모회  
②성마리아Co.-전동성당 27일(일) 후 2시  
③윤프레야-26일(토) 후 7시30분, 성당
  3. 청년회 야유회: 오늘, 만덕산
  4. 사제연수: 22일~24일, 나바위 피정의 집  
\*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람.
  5. 감사!: 제대꽃 봉헌-오카타리나(2만원).
  6. 성가에 관심있으신 분 환영: 수녀님, 전례부장에게 신청바람.
  7. 성소후원회비 납부: 구역장님께 납부바람.
  8. 성당 청소: 금주-평화의 모후Pr., 차주-바다의 별Pr.
  9. 금주 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이옥동 ②이석남  
봉헌-김단오 가정
  10. 차주 전례: 해설-이준봉, 독서-①강덕용 ②이순자  
봉헌-김중석 가정

□ 지난해 봉헌금: 352,100원 □ 교무금: 372,00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두

.....경축! 본당의 날.....

1. 주제: 주님-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요한 4, 13-15)
  2. 준비기간: 10월27일(일)~12월8일(일)
  3. 일정: ①10월27일(일) 후 2시~5시, 교육(육기),  
강사-본당 신부님  
②11월6일(수) 후 7시, 참회예절 및 고해성사, 손님신부님  
③11월17일(일) 성지순례, 전 7시; 천호성지→치명자산  
12시; 여산→천호성지  
④11월24일(일) 후 2시~4시, 교육(신앙인의 삶)  
강사-이순성(베드로) 신부님  
⑤12월8일(일) 전 10시30분-공동미사 및 나눔  
후 1시-연차총친목회, 기쁨잔치  
※ 전신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 실시

1. 예비자 입교식: 오늘 공식미사중  
\* 입교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람.  
\* 신청서-사무실
2. 차주 모임: 반장회-27일(일) 공식미사 후, 유아방
3. 반모임: 25번-오늘 후 3시, 김순남(안나) T.88-1431
4. 미사봉헌: 금주-12번, 차주-14번
5. 청소 안내: ①금주-상아탑Pr.  
②차주-평화의 모후Pr.

□ 지난해 봉헌금: 1,085,700원 □ 교무금: 806,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 환

1. 금주 모임: ①전교주일 2차헌금  
②바비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③청년회-후 8시  
④성심 유치원 운동회-성심학교
2. 주간 모임: ①성화회-21일 후 7시  
②성모회-22일 전 11시  
③베테타회-23일 전 11시  
④성지회-25일 후 8시
3. 사제 연수: 22일~24일, 많은 기도 바람.  
\* 사제 연수 관계로 22일 저녁미사, 23일 새벽, 저녁미사,  
24일 새벽미사는 말씀의 전례 거행
4. 차주 모임: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성 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5. 예비자 교리 안내  
화요일 후 8시-대학생, 청년반  
수요일 전 10시-노인반  
목요일 후 8시-직장인, 성인반  
토요일 후 4시-중·고생반  
일요일 전 9시-일반인 남녀

※ 성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 지난해 봉헌금: 2,107,670원 □ 교무금: 2,023,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녀원 232-5004 주임신부 이삼심  
F A X 232-5003 사무실 232-5005 사목회장 강상근

- ◎ 성지순례: 협조해주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전교 주일: 오늘 2차헌금 있습니다.
- ◎ 신부님 연수관계로 화요일(22일)미사는 새벽 5시 30분
- ◎ 평일미사에 참여하십시오.
- ◎ 주일미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 ◎ 주유권구입을 통해 성전신축을 도우십시오.
- ◎ 우리 모두 성전신축신입에 참여하십시오.

1. 오늘 모임:  
①임마누엘, 한빛, 노영, 성소후원회-공식미사 후  
②청년회-저녁미사 후
2. 주간 모임: ①자모회-11시30분(금)  
②성가대원례회-후 8시(금)
3. 성전신축봉헌금신입구좌(1구좌: 100만원)  
김중원2, 이영애1.5, 박옥선0.3, 익명1,  
소계 4.8구좌, 총계 434.9구좌
4. 성전 신축 봉헌금 납부  
익명 10만, 강경자(타분당) 50만, 허애자 5만, 유정희 30만,  
최완봉 50만, 최문자 5만, 유금순 100만,  
소계 2,500,000원, 총계 64,345,020원

□ 지난해 봉헌금: 960,500원 □ 교무금: 893,000원